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6.13(금) ~ 2025.6.19(목)

제공일시 2025 6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6.13(금) ~ 2025.6.19(목)

제공일시 2025 6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美상원,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종료 추진... 하원 버전과 달라지나

-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감세 법안과 관련해,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원)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미국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의원들은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4000달러(약 550만원)의 세액공제는 법 공포 후 9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짐. 북미 조립을 포함한 구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리스용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약 1032만원)의 세액공제를 이달 16일부터 종료하는 방안도 내놓음
-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됨

[\(아시아경제 2025.6.17\)](#)

2. EU, 최대 2억 리터 SAF 구매에 보조금 지원

- 유럽연합(EU)이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억 리터 이상의 SAF 구매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이는 전 세계 SAF 생산량의 15%에 달하는 규모임
- 이번 보조금 계획은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판매한 2000만개의 탄소배출권 수익을 재원으로 SAF 구매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보조금은 최대 2억1600만 리터의 e-연료 또는 최대 26억 리터의 바이오연료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임

[\(임팩트온 2025.6.13\)](#)

3. 美, 희토류 개발한다... “그린란드 광산에 1600억원 대출 검토”

- 희토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늦었긴 하지만 희토류 자급에 나서는 모양새임
- 미국 수출입은행(EXIM)이 그린란드에서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에 1억2000만달러(약 16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번 수출입은행의 대출 제안은 그린란드를 매입해 미국에 편입함으로써 막대한 그린란드 자원을 이용하길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도 맞아떨어짐

[\(디지털타임스 2025.6.16\)](#)

국내 정책

1. 환경부, 추경재원 위해 7000억 지출 구조조정... 전기·수소차 보조금만 5000억대

- 환경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재정당국이 추경을 앞두고 전 부처를 상대로 '불용(배정된 예산 미사용)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결과임
- 예년 불용률이 높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예산만 5000억원 이상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예산 5%에 달하는 만큼 환경부는 이번 조정분을 추경 사업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짐

[\(이투데이 2025.6.15\)](#)

2. G7 정상 앞에서 공급망·AI 혁신 강조... 美日과는 통상현안 논의

- 취임 11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방점을 찍고 있음
-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다자외교에 나선 만큼 주요국과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닦게 됨
-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 등을 주제로 발언할 기회가 예정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술력을 앞세워 협상 관계를 유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

[\(서울경제 2025.6.15\)](#)

3. 정부-발전업계, 과다할당된 '배출권' 놓고 첫 공식 논의

- 정부와 민간업계가 과다 할당 배출권을 놓고 처음으로 공식 논의에 나섬
- 정부가 지난 7년간 누락한 민간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 과다할당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임
- 1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1일 발전공기업 및 민간 발전사들과 첫 공식 회의를 갖고, 7년(2016~2022년)간 민간발전사 석탄 소비량 통계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총 2520만t 규모의 배출권 과다할당 문제를 논의함
- 발전업계는 정부의 통계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만큼 보유 중인 예비분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전기신문 2025.6.12\)](#)

글로벌 기업

1. MS·BMW도 투자한 '사이클릭', 캐나다에 회토류 재활용 공장 추진

- 캐나다 회토류 재활용 기업 사이클릭 머티리얼즈(Cyclic Materials)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회토류 재활용 공장을 건설함. 사이클릭은 13일 “온타리오 킹스턴에 회토류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2500만달러(약 34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힘
- 킹스턴 회토류 재활용 공장은 약 14만㎡ 규모로 건설됨. 사이클릭은 내년 1분기 공장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더구루 2025.6.13\)](#)

2. GM, 보급형 전기차 개발... 美 페어팩스 공장에 40억달러 투자

-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차세대 저가형 전기차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함
- 14일(현지시각) 자동차 전문 매체 카버즈(Carbuzz)는 GM이 미국 캔자스주 페어팩스 공장에서 차세대 보급형 전기차를 개발 및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회사는 새 전기차 개발 비용으로 2년간 40억달러(약 5조4400억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임
- 다만, 차세대 전기차가 볼트 EV 라인업에 포함될지, 새로운 브랜드로 나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IT조선 2025.6.16\)](#)

3. 창신 D램·양쯔 낸드... 中 '반도체 굴기' 첨단칩 노린다

- D램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낸드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주도하는 중국 메모리 굴기는 구형 시장을 넘어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첨단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음
- 중국 기업이 첨단 시장 진출에 성공할 경우 파괴력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임. 그간 중국 업계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했는데 HBM과 같은 고부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재정 자립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더욱 공격적인 연구개발(R&D)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임

[\(서울경제 2025.6.18\)](#)

4. 아마존, 호주 데이터센터에 2029년까지 18조원 투자... AI 인프라 확대

- 아마존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호주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총 200억호주달러(약 17조7500억원)를 투자한다고 자사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밝힘
- 이번 투자는 호주 내에서 진행된 아마존의 최대 규모 기술 투자로 서버 용량 확대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업무 지원에 집중될 예정임

[\(IT조선 2025.6.15\)](#)

국내 기업

1. LG엔솔, 체리기차에 '46시리즈' 배터리 공급... 中 원통형 시장 본격 진출

-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완성차 업체 체리기차에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지름 46mm)'를 공급함
- 중국 시장에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국내 배터리 기업 중 처음으로,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함
- LG에너지솔루션은 체리기차와 6년간 총 8GWh 규모의 46시리즈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힘. 이는 약 12만대의 전기차에 탑재 가능한 물량이며, 공급은 2026년 초부터 시작됨
-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극복하고 슈퍼사이클을 선도하겠다"고 말함

[\(지피코리아 2025.6.16\)](#)

2. 고려아연, '해저 자원개발' 美 상장사 TMC와 투자계약...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 고려아연이 전략광물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The Metals Company(이하 TMC)'에 투자함
-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로 니켈은 물론 구리, 코발트, 망간 등을 함유한 망간단괴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아 고려아연 제련소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쿠키뉴스 2025.6.17\)](#)

3. 삼성SDI, 헝가리에 최첨단 배터리 연구소 개소... 5600만유로 투자

- 삼성SDI가 헝가리 북부 괴드(Göd)시에 최첨단 배터리 연구개발(R&D) 센터를 공식 개소하며 자사의 글로벌 5대 R&D 거점 중 하나를 유럽에 구축함. 이번 투자는 헝가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R&D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됨
- 헝가리 정부는 이번 사업에 5억5000만포린트(약 1400만유로, 약 221억원)를 지원하며, 첨단 공정 엔지니어 인재 양성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임

[\(프레스나인 2025.6.13\)](#)

4. 네이버, 모로코 초대형 AI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참여

- 네이버가 모로코가 추진하는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함. 네이버는 AI 인프라 전문기업 넥서스코어시스템즈, 글로벌 투자사 로이드캐피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힘
- 이 사업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EMEA 지역 전역에 소버린AI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됨

[\(IT비즈니스 2025.6.14\)](#)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6.13(금) ~ 2025.6.19(목)

제공일시 2025 6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노르웨이, 산업용 CCS 본격 가동... 정부 보조금 3조원 투입

- 노르웨이가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음

-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의 배출가스를 포집해 북해 해저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총 340억노르웨이크로네(약 4조7000억원)가 투입되며 이 중 220억크로네(약 3조원)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함

- 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롱십(Longship)'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산화탄소 선적분은 노르웨이 남부 브레빅(Brevik)에 위치한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즈(Heidelberg Materials) 공장에서 이달 출항했으며, 오는 8월 노던라이츠(Northern Lights) 컨소시엄이 북해 유전 지층에 저장할 예정임

- 해당 컨소시엄은 에퀴노르(Equinor), 셸(Shell),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등 석유 메이저가 공동 운영함

- 이번 프로젝트는 총 500만톤의 탄소를 해저에 저장할 계획임. 초기 포집량은 브레빅 공장에서 연간 40만톤이며, 오는 2029년부터는 오슬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연간 35만톤이 추가됨

- 노르웨이 정부는 최근 해저 저장 용량을 기존 150만톤에서 500만톤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의 2단계도 승인했음

-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즈 도미니크 폰 악텐 최고경영자(CEO)는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컸다"고 말했음. 그는 CCS 시멘트를 '에보제로(evoZero)'라는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로 마케팅하고 있음

- CCS는 시멘트, 제철, 석탄화력 등 탈탄소가 어려운 산업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고비용·저효율·정부 의존도 과다 등의 비판도 상존함. 대부분의 국가는 예산 제약으로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이지만, 노르웨이는 서유럽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함

- 엔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2007년 CCS를 "노르웨이의 달 착륙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추진했지만, 비용 문제로 무산된 바 있음. 이번 롱십 프로젝트는 그 연장선상에서 15년 만에 착수됐음

- 테리에 아슬란드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은 롱십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녹색 전환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음. 노르웨이 정부는 향후 에퀴노르 등 기업들이 유럽 전역의 배출 산업체와 북해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이송 비용을 낮추는 구조로 확대할 계획임

- 아슬란드 장관과 폰 악텐 CEO는 보조금이 언제까지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으나, 아슬란드 장관은 "향후 10~15년 내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업성을 확보할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음

[\(임팩트온 2025.6.19\)](#)